

대형출판사들 월북작가 전집 낸다

삼성·을유·금성 등... 주요작품 폭넓게 수록

지난 7월19일 월북작가 해금조치 이후 오랜 유예기간을 건너온 책들이 활발하게 출간되어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다. '잊혀진' '실종된' '매몰된' 작가로 불리는 이들 문학사의 미아들이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건국 40년만에 처음으로 총체적인 한국문학사 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방 당시 현역으로 활동하던 문인 중 3분의 2를 '암매장'한 채 그 엄청난 공백을 이데올로기로 분칠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월북작가 출판은 출판계와 서점에 다시 없는 '好材'로 등장하여 두달 남짓한 사이에 이미 백여종에 달하는 책들이 쏟아지는 풍성한 수확을 보이고 있다. 시의 鄭芝溶이나 金起林, 林和, 소설의 李泰俊, 朴泰遠 등 지명도 높은 작가들은 개인전집까지 시도되고 있으며, 일부 중복출판의 폐해가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몇몇 출판사의 경우, 시류에 편승하여 엄격한 원본확정 및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는 채 '날림'으로 졸속 제작하는 것이 늘고 있어서 전공학자 및 유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형출판사들이 기획하고 있는 해금작가문학전집은 상당한 관심을 모은다. 서너명의 인기작가(?)에 국한하지 않고 중요한 작가, 뛰어난 작품을 폭넓게 선정·수록한다는 점, 연구의 기초를 넓히고 독자자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군소출판사보다는 아무래도 저작권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잊혀진 작가들과의 옛정 되살려

현재 월북작가작품선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대형출판사는 삼성이데아, 을유문화사, 금성출판사, 동서문화사 네군데. 이중 삼성과 을유는 작품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판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금성과 동서문화사는 한창 기획 중이다.

을유문화사가 추진하고 있는 「北으로간 作家選集」은 전10권에 13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담을 계획. ①권 김남천, ②권 안희남, ③④권 이태준, ⑤권 박태원, ⑥권 엄홍섭, ⑦권 박노갑, ⑧권 최명익·정인택, ⑨권 현덕·송영, ⑩권 허준·이석훈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선집은 7·19조치 이후 바로 작업에 착수, 현재 ①권 김남천의 「맥」과 ②권 안희남의 「불」이 점두에 나와 있다.

전집물을 많이 내온 대형출판사들이

월북작가문학전집 출간에 나서고 있다.

한국문학전집에 꼭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월북작가의 문학전집 발간은

기존의 전집에 대한 보완이라는

의미와 함께 몇몇 유명작가·시인에

국한하지 않고 중요한 작가와 작품을

폭넓게 선정·수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여기 수록된 작품의 상당수가 이미 을유문화사에서 한 번씩 간행한 책들이라는 점이다. 역사가 오랜 을유는 6·25 전 이태준의 장편 「思想의 월야」, 단편집 「福徳房」을 비롯, 鄭芝溶의 「芝溶詩選」, 金起林의 「詩의 理解」 등 많은 월북문인들의 작품과 저술을 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중심으로 선집을 펴내는 것이다. 을유의 高廷基 출판국장은 이들 책의 출판권은 법적으로는 자동소멸한 상태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을유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암울한 書庫구석에서 이들 옛책을 가려내 선집으로 펴내는 것은 한때 본사 편집실을 분주히 드나들었던 잊혀진 작가들과의 옛정을 되살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을유에서는 해방공간의 대표적 화가이며 수필가였던 金瑛俊(전서울대 미대교수)의 「近園隨筆」(1948년 을유에서 출간)을 「풍진세월 예술에 살며」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계획으로 있다.

현대문학의 제외된 영역 새롭게 정리

삼성에서 준비 중에 있는 「월북작가 문학전집」은 총18권으로 지금까지 나온 월북작가 작품집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①②이태준 ③④박태원 ⑤김남천 ⑥안희남 ⑦엄홍섭 ⑧이북명·이근영 ⑨이선희·이경준·이동규 ⑩김소엽·박노갑 ⑪최인준·송영·홍구 ⑫최명익·유항림·허준 ⑬김사랑·현덕·홍구범 ⑭임서하·김만선·지하련 ⑮⑯시 ⑰희곡 ⑱평론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金東里, 金允植, 權寧珉, 李御寧씨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1월쯤 출간할 계획으로 있다.

백성기 편집국장은 "이미 여러 군데서 중복출판해왔기 때문에 시장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동안 「단편문학대계」나 전집 등을 통해 현대문학작품을 정리해왔기 때문에 제외됐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0여년전 작품들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어렵고 아무리 읽어봐도 뜻이 통하지 않는 단어나 문맥이 나올 땐 확인할 길이 없어 참으로 막막하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삼성과 을유 모두 독자의 편의를 위해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는 현행으로 바꾸었으나 그 이상은 손을 대지 않고 원형을 살리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금성은 기왕에 나온 「한국단편문학전집」(32권)에 4권~6권 정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월북문인 작품선집을 낼 예정이다. 具仲書, 權寧珉씨에게 작품선정을 위촉했는데, 대략 10월 중순쯤 돼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출판사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이미 나와 있는 전집에 월북작가 작품집을 몇권 추가하는 것은 동서문화사도 마찬가지. 「한국문학전집」(30권)에 월북작가작품집을 다섯권 정도 추가할 계획으로 있다.

월북작가저작권 명확한 해결책 없어

현재 월북작가 작품집 출판에 있어서 가장 미묘한 것이 저작권 문제. 남한에 직계가족이 살고 있고 60년대에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등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그외에는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다. 이태준의 경우, 생질인 김명렬씨와 재당질 이동진씨가 있지만 실종신고가 안돼 있고 이태준의 호적이 6·25때 소실됨으로써 친 인척관계의 입증도 어려운 상태이다.

을유문화사는 일단 유족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한해서 인세를 지급한다는 방침아래 박태원·이석훈 두 작가의 유족과 출판계약을 맺었다. 직계가 아닌 친척들의 경우, 저작권 인계가 확실치 않으므로 좀더 관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삼성은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박노갑

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직계가 아니라도 남한에 친척이 있으면 그에게 인세를 지불한다는 방침인데, 소설의 박태원·이태준·박노갑, 시의 김기림·정지용의 친인척을 일단 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남한에 친인척이 없는 경우. 삼성의 한 실무자는 "일단 출판되는 책에 한해서는 인세가 자동책정된다"면서, 연변을 통해서 북의 작가나 그 유족들에 전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색적인 방법은 그 실효성을 넘어서 분단의 벽을 허무는 또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남진우 기자